

헤이세이 대분화 후 생태계의 회복

다루키 대지는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헤이세이신잔 대분화로부터의 부흥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헤이세이신잔 분화로 인해 흘러온 화쇄류에 여러 번 습격을 당했습니다. 화쇄류란 화산 분화시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리는 고온 가스, 재, 화산암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1995년 분화가 종식된 후, 이 곳은 지역 전체가 다른 세상처럼 변했고 생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땅이 식자 이끼와 잡초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식수를 시작했고, 2003년에는 재해 여파를 조사하고 향후 분화에 대비하기 위해 헤이세이신잔 네이처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화산 재해로부터의 부흥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나무도 숲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많은 재래종 동식물이 번식하기 시작했고, 숲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굵은 나무를 찾아볼까요? 이 나무는 토석류와 화재를 이겨낸 나무들입니다. 이 굳센 나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분화 후 수십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한 많은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네이처 센터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시마바라반도의 재래종 대부분은 화산 파괴에 적응했으며, 거친 화산 토양에 가치를 뽐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고, 이 지역으로 곤충과 조류가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무같은 큰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대지 전체에 식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생태계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